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장대한 민주화 드라마의 결정적 전환점

1979년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



정 광 민 부산대 경제학과 78학번, 부산노동자료연구실 대표,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 환경과자치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인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현)

박정희 대통령은 피살 직전 '부마사태'와 관련하여 학원내의 정보망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전에 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중앙정보부의 김재규 부장을 심하게 질책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질책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데모하지 않는 대학으로 유명하였던 부산대학교에서도 대학의 학생처를 중심으로 정보요원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캠퍼스내의 모든 곳을 은밀하고도 자유롭게(?) 활보하면서 정보수집에 열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터디 그룹과 관련된 일부 학생들은 이미 오래전에 문제학생의 리스트에 올려져 체계적인 감시대상이 되어 있었다.

문제는 당시의 시대상황이었다. 70년대 말에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사회적 기운이 무르익고 있었다. 반역을 꿈꾸는 청년들이 대학의 곳곳에서 시국을 논하고 은밀하게 투쟁방향을 모색하였다. 기존의 정보활동이나 감시체계만으로는 대학을 장악할 수 없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다.

사실 나는 지하 스터디그룹의 멤버도 아니었고 문제학생의 리스트에 포함된 학생도 아니었다. 나는 경제학도로서 경제학을 기초부터 공부하는 단계에 있었지만 거시·미시경제론

등 이른바 미국의 주류경제학에는 흥미를 느낄 수 없었다. 다만 커리큘럼의 경제사 공부를 통해 자본이 주도하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전혀 새로운 문제인식을 터득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과학 공부도 중요했지만 나의 실천과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교사'는 참혹한 '현실'이었다. 학생과 지식인들이 연일 구속되고 고문을 받아야 하는 현실과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현실은, 박정희 개발독재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최상의 텍스트였다.

나는 어느 때부터인가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경제학과 학우들과 시국을 논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부마항쟁 이전까지 나는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었다. 부산의 재야조직과 연계를 가진 것도 아니었으며, 문제학생으로 찍히지도 않았다. 때문에 나는 거의 완벽하게 정보부의 사찰대상 바깥에서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었다. 세월이 지나고서 하는 이야기지만 내가 주요 사찰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마항쟁을 촉발시키는 시위 주동자가 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정보부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세월이 그렇고 시국이 그런데 나같이 스스로 '투쟁의 불꽃'이 되리라 맹세하는 '자생하는 투사'들에 대해 정보부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었겠는가?

내가 79년의 10.16 투쟁을 결의하게 된 데는 두 가지 계기가 있었다. 하나는 10월초 김영삼 신민당총재의 의원직 제명 사건이었다. 야당 총재가 뚜렷한 이유없이 정치적 반대세력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명당한다는 것은, 초보적인 민주주의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 부마항쟁이 일어난 후 부산지역 제업사 합동수사본부가 부산 시민 100명을 상대로 한 시위 원인 조사에 의하면, 김영삼 의원직 제명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나는 당시 현실 정치세력의 그 누구도 지지한 바가 없지만 야당 총재가 제명되는 사태는 야당을 와해시키려는 '유신독재의 극단적인 행태'로 인지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고도 남았다.

이때부터 나는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되지 않아서 가장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왔다. 10월 15일, 대학내에 박정희 유신독재를 비판하는 유인물이 뿌려졌다. 이날의 움직임은 공대의 이진걸이 주도한 것인데, 유인물 배포만으로 끝이었다. 그렇지만 꼭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은 긴장감이 학내에 팽배하였다. 많은 학우들이 강력한 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였다.

나는 이날 오후부터 '급진적 행동주의자'가 되었다. 나는 경제학과 학우들과 곧바로 새로운 투쟁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복형사들이 짝 깔린 이런 분위기에서 다음날 바로 시위를 조직하는게 가능하겠는가?"하는 의견도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물러설 수 없었다. 투쟁의 불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불을 지피기만 한다면 최소한 학내시위는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나는 전도걸, 황현규 등 경제학과 학우들과 의기투합하였다. 그리고 동분서주하여 출판과 등사판을 구하였다. 출판은 당시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계셨던 전도걸의 부친이 사용하던 것이었다. 등사판은 당시 대학내 모 서클에서 사용하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집 다락방에서 유인물 인쇄 작업을 시작하였다. 집에는 부모님들이 친목계 여행을 떠나셨고 어린 동생만 남아있었다. 나와 전도걸은 밤을 세워 유인물을 제작하였다. 처음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인쇄가 서툴렀다. 인쇄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 자체가 학생들의 관심을 극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유인물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밤새 극도의 긴장감에 사로잡혔다. 거의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과연 유인물을 학내에 반입할 수 있을까, 교문에서 경찰에 체크되지 않을까, 시위 대오를 형성할 수 있을까, 등등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섰다.

10월 16일 오전 9시경, 나는 이날 시위에 사용할 유인물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대학 정문을 무사히 통과하였다. 정문 부근에 사복들이 없지 않았을 터인데 그 누구로부터도 검문을 당하지 않았다. 경찰들도 문제학생의 리스트에 올라있지 않은 '무명'의 '정광민'이 이날 시위의 주동자가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상대 앞 벤치에서 경영학과 의 또 다른 학우 박준석을 기다렸다. 그리고 우리들은 10시경 화폐금융론 강의가 있는 강의실로 향하였다. 강의실에는 8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있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경영학과 임태언에게 유인물 배포를 부탁하였다. 학우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 무엇인가 터질 것이 터졌다는 분위기였다. 그 순간 나는 강단의 전면에 나가 간단한 스피치를 하였다. "드디어 오늘이 왔다. 우리 모두 피흘려 투쟁하자!"고 외쳤다. 그러자 학우들이 삼삼오오 강의실 밖으로 나가 대오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수십명의 학생들이 상대 앞에 모여 '통일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당시에 운동권 노래가 거의 보급되지 않았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터져나온 노래가 '통일의 노래'였다. 우리들은 이 노래를 합창하며 '유신독재 철폐' '학원사찰 중지'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도서관으로 행진하였다. 대학 전체가 격동하는 순간이었다. 수많은 학우들이 이 시위대열에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도서관 앞 잔디밭에 도착하였을 때, 시위참가자의 숫자는 수백명으로 늘어났다.

학생들은 잔디밭에 집결하여 '통일의 노래' '선구자' '아침이슬' 등의 노래를 합창하였다. 그리고 '정치탄압 중지' '유신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외쳤다. 도서관 앞에는 학생처장과 여러 교수들, 그리고 사복경찰들이 나와 학생들을 제지하려 하였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반독재 투쟁의지는 하늘을 찌를 듯 하였고 그 누구도 그들을 제지할 수 없었다. 선언문 낭독이 끝나자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스크림을 짜고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도서관 계단 아래로 내려가 캠퍼스 본관 뒷길을 행진하였다. 시위대가 운동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그 숫자는 수천명에 이르렀다. 일찍이 본적이 없는 거대한 학생대중투쟁이 개시된 것이다.

돌이켜보건대 10·16 투쟁은 개인적으로는 생애 중 최대의 성공 사례였다. 대규모 시위를 준비할 조직역량도 경험도 일천한 가운데서 몇몇 학우들 중심으로 하루 낮과 밤의 짧은 기획으로 역사를 움직이는 투쟁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그것은 대단한 성공이었다.

나는 시위대가 교문을 사이에 두고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서관 옆 담을 넘어 피신 길에 올랐다. 학우들이 "네가 할 일은 이제 끝났다. 빨리 피신하라"면서 등을 떠밀었다. 나는 사실 시위 준비단계 혹은 투쟁 중에 연행구속될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피신의 문제는 생각지도 못하였다. 그런데 피신이라니? 나는 갈 길이 막막하였다. 수중에는 돈도 몇 푼 없었다. 급히 생각난 곳이 고성 친구집이었다. 장전동을 빠져나와 경남 고성행 버스에 올랐다.

한편 학생들은 16일 오후부터 시내로 진출하여 가두투쟁을 전개하였다. 남포동의 상인들은 경찰에 쫓기는 학생들을 숨겨주었다. 문방구점 주인은 태극기를 학생들에 나누어주었고 전파상에서는 애국가와 선구자 노래를 틀었다. 노점상 아주머니들도 학생들에게 김밥과 우유를 주었으며, 과일과게 주인은 사과를 던졌다. 어둠이 깔리면서 학생들의 시위대에 일반시민과 노동자들이 가세하였다. 시민들은 파출소, 세무서, 그리고 언론사를 습격하였다. 이날

밤부터 시위는 그야말로 ‘민중봉기’의 성격을 띠기 시작하였다.

10월 17일 오전 9시 부산대학교는 총장이름으로 ‘임시휴교’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경찰들이 동원되어 학생들의 등교를 통제하였다. 그러나 교문 앞에 운집한 수천명의 학생들은 곧바로 가두투쟁에 돌입하였다. 동아대학교 학생들도 이날 교련수업을 거부하고 학내시위를 벌였다. 이날 밤의 가두투쟁은 더욱 격렬해졌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박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한지 7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박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유신 7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공화당과 유정회 의원들을 초청하여 파티를 열고 있었다. 누군가가 “대통령각하의 만수무강을 위해 건배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축하 파티의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부산에서 다시 시위가 격렬하게 진행된다는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이다. ‘유신파티’는 예정보다 일찍 끝났다. 그리고 박대통령은 최규하 국무총리에게 부산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을 지시하였다. 17일 오후 11시 30분 임시국무회의에서 18일 0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 결의되었다.

나는 더이상 고성에 머무를 수가 없었다. 더 오래 머물면 무고한 친구의 부모님들께 큰 폐를 끼칠 것 같았다. 나는 18일 오전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다. 부산의 주요 관공서와 대학에는 중무장한 군인들이 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계엄반대’ ‘유신철폐’를 외치면서 가두투쟁을 계속하였다. 시민들이 무장군인들에게 구타당하는 사례도 속출하였다.

부산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날, 반유신 반독재 투쟁은 이웃 마산으로 번졌다. 경남대학교에서도 투쟁의 불길이 타올랐다. 부산보다 더욱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10월 20일, 마산·창원 일대에 위수령이 발동되었다.

나는 부산에서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나중에는 초등학교 시절의 친구였던 이태은의 집에 은신하였다. 그러던 중 나는 경제학과의 모 교수님을 찾아갔다. 평소 강의 중 한국의 경제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제기를 많이 하였고 그 때문에 나는 평소 그 교수님을 상당히 존경하고 있었다. 내가 그 교수님을 찾은 것은 대단히 절박한 상황에서 학내 상황이 어떤지 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를 여쭙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그 교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나를 둘러싼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제학과의 전 교수들이 말 못할 고초를 당하고 있다”거나, “경제학과 자체가

폐파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나는 나로 인해 주위 교수님이나 학우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무척 괴로웠다. 나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다. 교수님도 나에게 자수를 권유하였다. 사실 그런 엄혹한 상황에서 교수님이나 나나 달리 다른 대처 방법은 없었다. 장기간의 피신생활도 불가능하였다. 나는 10월 20일(21일?) 동래경찰서에 구속되었다.

이미 동래경찰서에는 수백명의 학생·시민들이 연행되어 고초를 겪고 있었다. 나는 구속된 며칠만에 물고문을 심하게 당하였다. ‘배후’가 누구냐는 것에 수사의 초점이 있었다. 나는 배후가 없었지만 수사당국은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럴 때 마다 그들은 고문을 가했다. 나는 어느날 완전히 실신해버렸다. 그리고 경찰서 부근의 병원에 실려갔다.

김재규의 항소이유서를 보면, 박대통령은 부마항쟁의 배후세력으로 신민당을 지목하고 수사를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려 하였던 것 같다. 그렇지만 나를 비롯하여 다른 학생들에게서 신민당 관련 사실이 있을 수 없었다. 시위주동자들이 정당과는 무관하였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김재규가 부마항쟁을 현시찰하고 ‘민란’이라고 규정한 점은, 비록 봉건시대의 냄새를 풍기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정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부마항쟁 이후 그 발생원인의 규명이나 대처방법을 둘러싸고 집권세력 내부로부터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10월 25일 박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마사태 대책회의’에서 정보부는 부마사태의 원인으로서 장기집권에 따른 불만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었다. 그렇지만 박대통령의 생각은 달랐다. “정부의 실정보다는 김영삼의 조종이 더 큰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10월 26일 궁정동 만찬 석상에서 박대통령의 이런 취지의 발언은 되풀이되었다. “부산데모만 하더라도 식당뽀이, 뜯만인들이 많았잖아. 그놈들이 어떻게 선별수리란 말을 알겠어. 부산사태 같은 것이 또 생기면 이제는 내가 발표명령을 내리겠다.” 박대통령의 심복이었던 차지철도 거들었다. “부산데모는 신민당이 배후조종한 폭동입니다. 그까짓 새끼들, 까불면 신민당이고 학생이고 탱크로 싹 깔아뭉개버리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300만을 죽여도 까딱없는데.”

김재규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정권의 운명이 다했구나”라고 생각하였다고 한다. 두 사람의 대화내용을 보면 김재규와 같은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박대통령은 민중봉

기의 참가자들을 ‘식당뿐이’ ‘풀만이’ 로 폄하하면서 더 강력한 무단통치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묘하게도 먼저 총탄 세례를 받은 자는 박대통령 자신이었다. 김재규의 총탄에 그는 쓰러졌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하여 박정희의 18년 군사독재정권은 막을 내렸다.

나는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박대통령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은 사실이었다. 당시 많은 국민들이 박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눈물을 흘렸다고 하지만 나는 두려움을 느꼈다. 갑작스런 독재자의 죽음이 더 혹독한 박해를 가져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 이후 긴급조치9호가 해제되면서 79년 12월 8일, 나는 뜻밖에도 너무 빨리(?) 부산교도소에서 석방되었다. 잠시동안 해방감에 들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다. 또 다른 엄혹한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